

모두 발언

2026. 9. 29.(화) 14:05

금융투자협회(23F)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우리 증권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만큼 풀어야 할 현안도 많고,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오늘 이러한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II 증권산업의 평가와 전망

올해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60% 넘게 오르는 등
뚜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상승의 대부분은
소수 대형주 쏠림에 기인한 것이었고,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업계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만,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기반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증권산업은
그 미래를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Ⅲ 당부 말씀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본시장 체질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잇는 자금중개자이자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일부 있었습시다만,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에게 배당 등 주주환원* 관련하여 기준점을 제시하여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코스피 상장 종투사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 :
미래 11.1%, 키움 27.1%, 삼성 35.5%, NH 47.3%, 대신 51.0%

둘째, 증권사의 커진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업계의 성과는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작 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 '25년 사회공헌활동 사업비 : 국내은행 2.2조원, 국내증권사 500억원(잠정)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주십시오.

* '26년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 국내은행(20개사) 13.8조원,
국내증권사(37개사) 8.6조원

아울러 법규상 설명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자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투자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투자자 보호 문화가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시장의 변동성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융자는 증시 호황과 맞물려서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 '24년말 15.8조원 → '25년말 27.3조원 → '26.6월말 37.3조원 → '26.8월말 33.3조원

특히 특정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시장의 쏠림현상과 변동성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최근 협회 중심으로 자율결의를 통해
종목별 신용유자를 제한하고,
자기자본 대비 한도를 강화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결의한 내용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금조달 여건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최근 증권사의 업무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건전성 관리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게 된 만큼
리스크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들어섰으므로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新조정유동성비율 제도가 내년 시행될 예정이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험자본,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살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투자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을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의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행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간 감독자의 시선에서 지켜본 결과
CEO의 관심과 자원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CEO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역량을 집중하여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IV 맺음말

제가 최근 런던에 가서 현지 금융감독당국,
기관투자자 등과 다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지가 여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자본시장의 대내외 환경이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체질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투자자, 기업, 증권사가
모두 더불어 성장한다는 자세로

오늘 모이신 CEO 여러분께서
자본시장 발전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
앞장서 주십시오.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